

# aT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 3년 연속 A등급

###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영역 높은 점수 자회사와 상생 협력...운영 내실 기해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회사와 상생 협력하며 운영에 내실을 기해 성과를 내고 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독립적·안정적·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기관을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9개 공공기관과 자회사 9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영역에서

진행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9년 자회사 '에이플 주식회사'를 설립해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 초기에는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설립 5년여가 지난 현재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사와 상생 협력을 위해 소통 활성화와 운영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 분야별 모·자회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소통 채널을 다각화해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진했다. 이 밖에도 공정계약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과업 지시서의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는 등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4개 평가항목 중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영역에서 높은 점

수를 획득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상생 협력의 자세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회사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맛있는 봄 수박 출하 농협유통이 올해 처음으로 출하된 맛있는 봄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일 농협 하나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봄 수박을 소개하는 모습. (농협유통 제공)

## 지역상권 재건...중기부 '동네상권발전소' 영암·무안군 선정

전국 13곳 사업지...최대 1억5천만원 지원

민간 전문가와 상인, 주민이 협력해 지역 상권을 재건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발전소'에 전남지역에서 영암군과 무안군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는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역 구성원이 상권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 상권들은 최대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영암월출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영암읍 서남리·동무리·역리 일대를, 무안군은 목포(췌관잡아 마을에서 무안군 청계면 일원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회트렌드 접목을 통해 지역상권을 창의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 역량을 보유한 상권기획자와 지역 구성원들이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월 내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불필요한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한은 광주전남본부, 경제 마스터즈 발대식

광주·전남 대학생 참여  
다양한 경험·경력개발 기회 제공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1일 "지난 9일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목포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2024 한은 경제 마스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한은 경제 마스터즈는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운영해오고 있으며 높은 관심도를 고려해 올해 인원을 기존 38명에서 46명으로 확대했다. 발대식 당일에는 화폐전시실 및 발권창구 견학,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에 대한 소개 등을 진행해 참가자들이 당행의 채용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참가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 수료식까지 9개월 동안 금융경제강좌 수강, 자체 토론대회 참가, 문화체험 및 산업현장 견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제형형 청년인

턴, 정기 채용 등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채용설명회 개최 예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체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참여한 경제 마스터즈 최종 이수자에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명의의 이수증, 기념품 등을 수여한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임재만 기자

## 광주경총 제80회 이사회 개최...공동안전관리자 등 추진

방주희 대표 부회장 선임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전날 나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사파이어홀에서 제80회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올해 신규로 확보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굿 잡 매칭 프로젝트 사업을 보고하고 ▲임원 선임 ▲특별회계 예산 변경 ▲신입회원 가입 ▲회비부과 기준 변경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

이날 광주경총 부회장(비상근)으로 선임된 방주희 대표의(주)아이디어플랫폼은 제조업 기반의 인큐베이팅 전문 디자인, 제조, 마케팅, 유통 허브시스템

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기업에게 노하우를 공유하는 액셀러레이팅 회사로 광주경총 회원사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역 내 스타트업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사업인 산업현장밀착형 굿 잡 매칭프로젝트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3월8일 정기총회 이후 회원가입을 신청한 11개사의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장은 "신규사업 승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어려운 50인 미만 회원사에게 무료로 컨설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경총은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 회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